

므낫세와 요시아의 평가를 통해서 보는 역대기

민경구(에스라성경대)

1. 들어가는 글

사울부터 남유다의 멸망까지 대략 20여명의 왕이 500년간 통치한 기록이 사무엘-열왕기서까지 그리고 역대기서에서 관찰된다. 역사의 저자는 왕들에 대해 냉혹하게 비평하기도 하지만(왕상 11:7), 아주 드물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왕하 18:5-6). 하지만 동일한 인물에 대한 소위 신명기 역사가의 평가와 역대기 역사가의 평가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경우가 관찰되어 독자를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므낫세와 요시아는 두 역사서에서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필자는 두 인물을 관찰함으로써 역대기가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 더 나아가 역대기 역사가의 특징을 유추하고자 한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역대기 역사서가 신명기 역사서를 주요 사

료로 활용하여 역사를 서술한다고 인식해 왔다.¹ 그러나 이 역사가는 자신이 활용한 사료를 무 비판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며, 일부 인물에 대해서는 평가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므낫세’와 ‘요시아’, 두 인물의 평가가 달라지는 원인에 대해 학자들은 주로 ‘개인 책임’을 근거로 설명한다.² 야벳(S. Japhet)은 역대기의 신학을 정리하며 역대기가 ‘축적되는 죄’와 ‘조상의 공로’와 같은 것을 거부하고, 심판과 공로를 ‘개별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강조한다.³ 이와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딜라드(R. B. Dillard)⁴ 그리고 윌리엄슨(H. G. M. Williamson)⁵는 ‘즉각적 보응의 신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역대하 10-36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피력하지만, 개인 행위에 대한 보응이라는 점에서 ‘개인 책임’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기준은 므낫세와 요시아에서도 다르지 않다. 물론 필자는 역대기 서술에서 ‘개인 책임’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수용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두 인물의 평가가 변화하는 원인을 새롭게 밝히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서술되는 시대”의 관점이 아니라, “서술하는 시대”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을 피력할 것이다.⁶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
- 1 참조하라. M. Noth,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Die sammelnden und bearbeitenden Geschichtswerke im Alten Testament* (Darmstadt: Max Niemeyer, 1963), 133-134.
 - 2 이에 대해 참조하라. H.-S. Bae, *Vereinte Suche nach JHWH. Die Hiskianische und Josianische Reform in der Chronik*, BZAW 355 (Berlin: de Gruyter, 2005), 62.
 - 3 참조하라. S. Japhet, *The Ideology of the Book of Chronicles and Its Place in Biblical Thought* (Winona Lake: Eisenbrauns, 2009), 129.
 - 4 참조하라. R. B. Dillard, 『역대하』, WBC (정일오 옮김), (서울: 솔로몬, 2005), 240.
 - 5 참조하라. H. G. M. Williamson, *Israel in the Books of Chronicl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67.
 - 6 “서술되는 시대”와 “서술하는 시대”의 개념에 대해 참조하라. E. Otto, *Das Deuteronomium im Pentateuch und Hexateuch. Studien zur Literaturgeschichte von Pentateuch und Hexateuch im Lichte des Deuteronomiumrahmens*, FAT 30 (Tübingen, Mohr Siebeck, 2000), 120; 민경구, 『다시 읽는 창세기』 (고양: 이레서원, 2019), 16.

역대기를 서술하는 시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필자의 소논고는 그 시기를 상정하는⁷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 다만 역대기 역사서를 포로기 이후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에는 일치된 의견이 있으므로,⁸ 본 소논고는 그것을 전제로 한다.

2. 몸글

1) 므낫세(대하 33:10-20)

(1) 역사가의 상이한 기록

므낫세에 대한 역대기 기록은 역대하 32:33에서 처음 관찰되며, 본문은 히스기야의 죽음과 함께 그가 왕으로 등극했음을 보도한다.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55년간 통치한 인물로 남유다의 최장수 왕으로 알려져 있다(왕하 21:1; 대하 33:1). 신명기 역사가와 역대기 역사는 그에 대해 “야웨의 눈에 악을 행했다”(יַעַשׂ הָרַע בְּעֵינָי) **야웨의 눈에 악을 행했다** (בָּאֵימָה! **야웨의 눈에 악을 행했다**)고 공통적으로 평가한다(왕하 21:2; 대하 33:2). 이후 본문은 야웨의 눈에 옳지 않았던 므낫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대하 33:3-7).

역대하 33:10 이하에는 므낫세의 불순종과 그 결과로 앗수르 왕이 야웨의 도구가 되어 남유다를 공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11절). 그러나

7 김윤이, “역대기 역사서의 편집층 연구”, 『구약논단』 22집 (2006), 80-97, 93-95; 추가로 참조하라. 김윤이, 『역대기 역사서의 초기 편집층 연구』,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67 이하.

8 참조하라. B. C. Birch, W. Brueggemann, T. E. Fretheim, and D. L. Petersen, 『신학의 렌즈로 본 구약개관』 (차준희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617-618; R. D. Nelson은 역대기를 읽을 때 “시간왜곡”을 겪게 됨을 말한다. 참조하라. R. D. Nelson, 『역사서』 (이윤경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195.

역대하 33:12 이하에는 므낫세에 대한 상이한 기록이 나오며, 우리는 이것을 몇 가지 부분에서 주목해야 한다.

첫째, 역대기 사가에 따르면 므낫세는 ‘앗수르 왕’(מֶלֶךְ אַשּׁוּר) 벨렉(아수르)에게 붙잡혀 포로로 끌려갔지만(대하 33:11), 열왕기하 21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니스웨에서 발견된 프리즘은 앗수르바니팔이 애굽을 정벌할 때 앗수르를 도왔던 지중해 동편의 봉신들을 언급하는데, 여기에는 므낫세의 이름도 나온다.⁹ 즉, 근동의 기록은 앗수르바니팔 시대(ca. 주전 669-627)에 므낫세가 앗수르의 봉신으로 전락해 있었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고고학 발굴은 앗수르바니팔 보다 앞서서 옛살하돈(ca. 주전 680-669)이 지중해 동편에 위치한 국가의 왕들을 소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데,¹⁰ 쇼어스(A. Schoors)는 이것을 므낫세의 포로 생활과 연결시켜 해석한다.¹¹ 이후에 역대기 저자는 앗수르 왕이 므낫세를 ‘사로잡았다’(וּלְכָדוּ וּלְכָדוּ) 바일케두)고 언급할 뿐만 아니라, ‘쇠사슬로 결박했다’(וּלְאַשּׁוּר וּלְאַשּׁוּר) 바야아스루후 반후쉬타임)고 기술한다. 이러한 관용구는 구약에서 제한적으로 나오는데, 가장 먼저 ‘삼손’이 블레셋에 사로잡히는 것을 서술하며(삿 16:21), 이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사로잡히는 것을 묘사한다(왕하 25:7; 렘 39:7; 52:11). 덧붙여 삼손과 시드기야의 경우에는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갔다는 점도 동일하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 신명기 역사서는 왕정 이전과 왕정 마지막의 모습을 연결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한다.

9 참조하라. “Aus dem Prisma Ninive A Asarhaddons”, *TUAT*, Bd. I, 397.

10 “에살하돈(680-669): 시리아, 팔레스타인 원정”, 『고대 근동 문학 선집』 (강승일/김구원/김성천/김재환/윤성덕/주원준 옮김), (서울: CLC, 2016), 535; J. M. Myers, 『역대기 하』,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250-251.

11 A. Schoors, *Die Königreiche Israel und Juda im 8. und 7. Jahrhundert v. Chr.: Die assyrische Krise*, Biblische Enzyklopädie 5 (Stuttgart: W. Kohlhammer, 1998), 70.

본문	인물	포로지	눈 뿔힘
삿 16:21	삼손	블레셋	○
왕하 25:7; 렘 39:7; 52:11	시드기야	바벨론	○
대하 33:11	므낫세	바벨론	×

둘째, 우리는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보도하는 역대기 역사서에 주목해야 한다(11b절). 저자는 므낫세가 앗수르 왕에게 사로 잡혔다고 보도하지만, 그가 끌려간 곳을 ‘바벨론’(בָּבֶל 바벨)으로 명시한다. 나보폴라살이 바벨론 왕으로 등극하기(ca. 주전 626/5년) 전까지 바벨론은 앗수르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¹²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기록은 그리 놀랍지 않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가 언급하는 ‘바벨론’은 바벨론 포로 사건과 연결되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스 1:11). 11-13절은 ‘바벨론으로’라는 포로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라는 귀환지를 명시한다. 이로써 므낫세는 바벨론 포로 발생 이전에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첫 인물로 서술되고 있다.

셋째, 역대기 저자는 므낫세가 야웨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서술한다. 므낫세는 환난을 당했을 때, 야웨에게 ‘간구’했으며, ‘크게 겸손’했다(12절). 이것은 열왕기서와 전혀 다른 므낫세의 모습을 서술한다. 므낫세에 대한 이러한 역대기 기록은 신명기 역사가의 기록과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며, 그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이끌어 내었다. 추가로 역대기 저자는 야웨가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서술함으로써(대하 33:13), 므낫세의 회개가 형식적이지 않았다고 암시한다. 그 결과 므낫세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므낫세에 대한

12 Shamash-Shuma-Ukin이 주전 652년에 일시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바벨론이 독자적 왕국을 형성한 시기는 주전 626/5년경이다.

평가는 “므낫세가 그제서야 아웨께서 하나님으신 줄을 알았더라”는 표현에서 절정에 이른다(13b절). 이로써 므낫세는 회개의 모범적 인물이 되었다.

넷째, 므낫세에 대한 독특한 기록은 14-20절에 길게 관찰된다. 이것은 역대기와 평행한 열왕기서에는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므낫세가 행한 종교 개혁을 서술한다. 그는 이방 신들과 아웨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했고(15절), 아웨 제단을 보수하여 제사를 회복시킨 왕으로 묘사되었다(16절). 그는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지만, 오직 아웨에게만 제사를 드렸다(17절). 그러나 아몬에 대한 평가에서 므낫세는 부정적 평가를 받는 전형으로 다시 관찰되는데, 이는 아마도 역대하 33:9 이전의 므낫세 모습을 가리키는 듯 하다.

(2) 역대기에 나타난 므낫세

전술한 것처럼 역대기에 언급된 므낫세는 열왕기서의 기록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왕으로 등극한 초창기에는 아웨에게 불순종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지만, 역대기 저자는 앗수르에게 사로잡힌(?) 사건이 므낫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서술한다. 우리는 우선 므낫세가 앗수르에게 사로잡혔을 뿐 아니라, ‘죄사슬로 결박’ 당해 끌려갔다는 기록의 역사성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므낫세가 옛살하돈에게 소환된 사건은 정복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옛살하돈의 아들인 앗수르바니팔의 즉위식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옛살하돈은 지중해 동편 왕들을 소환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봉신 조약을 체결하며 앗수르바니팔에게 충성을 강요했다(265, 283, 397-409줄).¹³ 그런 이유로 므낫세가 앗수르에

13 “에살하돈의 종주조약”, 『고대 근동 문학 선집』 (강승일/김구원/김성천/김재환/윤성덕/주원준 옮김), (서울: CLC, 2016), 455-471.

게 소환된 것은 간과할 수 없지만, ‘쇠사슬로 결박’ 당해 끌려갔다는 기록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¹⁴ 오히려 므낫세의 모습은 시드기야가 ‘결박 당한 채’ 바벨론에 끌려가는 모습과 유사하다(왕하 25:7; 렘 39:7; 52:11).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시드기야와 유사하다는 점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개혁은 요시아의 개혁을 닮아 있으며, 이를 통해 역대기 저자는 요시아 유월절 보다는 히스기야 유월절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관찰되기 때문이다.¹⁵ 이와 유사하게 역대기 저자는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포로가 상당히 일찍부터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역대기 저자의 강조는 포로 발생에 있지 않고,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므낫세가 ‘기도’한다는 점에 있다. 우리는 12-13절이 언급하는 ‘간구하고(גָּחַן 힐라), 기도하는(לְבַרְכָּתִי 바이트팔렐)’ 므낫세의 행동에 낯설어 한다. 오히려 열왕기서는 히스기야가 야웨를 향해 기도하고, 응답되었다고 기록한다(왕하 20:2, 5). 본문은 므낫세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 첫째, 야웨는 이방 땅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가? 본문은 그것에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므낫세의 모습은 솔로몬의 낙성식 기도에서 나오는 “(야웨에게)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왕상 8:33)하는 인물상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둘째, 야웨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신명기 역사서에 따르면, 므낫세는 예루살렘을 피로 채운 가장 악한 왕일 뿐 아니라(왕하 21:16), 악한 왕의 전형으로 나온다(왕하 21:20). 심지어 요시아가 종교 개혁과 같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야웨를 격노

14 참조하라. S. Japhet, *2 Chronik*, HThKAT (Freiburg i. Breisgau: Herder, 2003), 450.

15 참조하라. 민경구, “히스기야와 출애굽. 역대하 30장에 나타난 유월절의 신학적 함의”, 『C&C』 15권 2호 (2021), 109-139. 특별히 123-124.

하게 한” 것 때문에, 야웨는 남유다를 향한 진노를 거두지 않았다(왕하 23:26).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그러한 므낫세 조차도 기도하면 야웨가 기도를 받으신다고 보도한다. 따라서 역대기 저자는 므낫세의 모습을 통해 ‘누가 야웨에게 기도할 수 있는가?’를 가르친다.

역대기에 나타난 므낫세의 두 번째 모습은 포로 귀환자로서 상(像)이다. 그는 앗수르 왕에게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므낫세가 끌려간 곳을 ‘바벨론’으로 서술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만약 우리가 ‘포로 귀환자의 시각’이 역대기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수용한다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역대기의 기록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환언하면, 역대기에는 ‘서술되는 시대’와 ‘서술하는 시대’가 공존한다.¹⁶ 므낫세가 사로잡히는 모습은 시드기야를 연상시켜 국가 멸망의 순간과 중첩된다.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그리고 그의 후손은 어떻게 다시 유대 땅으로 귀환할 수 있을까? 역대기 역사가는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서술함으로써, 포로와 귀환이라는 주제에 대해 가르친다. 역대기 역사가는 므낫세와 같은 가장 악한 자를 내세워 그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 결과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다’(וַיָּשִׁיבוּ) 파에쉬베후)고 명시한다. 여기에는 포로 귀환 신학을 반영하는 שׁוּב(슈브) 동사가 사용되었다. 무엇보다 Hifil 형태의 이 동사는 야웨를 주어로 취하므로, 본문은 야웨가 ‘그를 돌아오게 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본문은 므낫세의 기도와 야웨의 귀환을 중요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므낫세가 다시 ‘왕위에 앉았다’는 표현은 귀환한 자들이 본래 위치로 찾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포로 귀환 공동체의 기원이 담겨 있는데, 포로기 이후 본문은 귀환자들이 본래 위치로 찾아가는 과정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

16 참조하라. R. Kessler, 『고대 이스라엘 사회사』 (민경구 옮김), (서울: CLC, 2022), 61.

있음을 묘사하기 때문이다(비교. 슥 5:3).

역대기 기록은 ‘므낫세의 평가를 바꾸었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선다. 므낫세는 야웨에게 기도했고(לְבַרְכֹּת אֱלֹהֵי יִשְׂרָאֵל 바이트팔렐), 야웨는 그의 기도를 들었으며(וַיִּשְׁמָע אֱלֹהִים 바이쉬마), 땅으로 돌아오게(וַיִּשְׁבֹּר אֱלֹהִים בָּאָרֶץ 바에쉬베후) 했다(대하 33:13). 이러한 언어의 나열은 솔로몬의 기도와 연결된다(왕상 8:33-34; 대하 6:24). 따라서 역대기 기록은 므낫세에 대한 평가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그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는 인물의 전형으로 제시한다. 역대기 저자가 묘사하는 므낫세의 모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므낫세는 ‘이방 신들과 야웨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고(וַיִּסְרֹף בָּאֱלֹהֵי הַגּוֹיִם 바야사르)’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는(וַיִּשְׁלֹךְ אֶת הַבַּיִת בָּאֶרֶץ 바이쉬레크)’ 자로서 종교 개혁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제단을 헐고 우상을 버리는 행위는 히스기야/요시아 시대의 행적으로 기록되었는데(왕상 23:12-15), 역대기 역사가는 성서의 위대한 인물상의 일부를 므낫세에게 귀속시켰다.

역대기 역사가는 므낫세의 회심이 평가의 전환점이 된 것처럼 서술한다. 이와 관련하여 딜라드는 역대하 10-36장에서 ‘즉각적 보응의 신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피력한다.¹⁷ 이러한 해석은 충분히 수용할 만 하다. 하지만, 우리는 역대기 역사가의 결과론적 해석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위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도록 지속되었다(주전 696-642/1).¹⁸ 주지된 바와 같이 역대기 역사가는 신명기 역사서를 알고 있었고, 따라서 므낫세의 오랜 기간 통치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

17 참조하라. R. B. Dillard, *윗글*, 240.

18 참조하라. K. Matthiae und W. Thiel, *Biblische Zeittafeln, Geschichtliche Abrisse, chronologische Übersichten, Überblickstafeln und Landkarten zur alt- und neutestamentlichen Zei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5).

서 역대기 역사가는 ‘가장 악한 왕’이 어떻게 ‘가장 오랜 기간’을 통치할 수 있었을까 질문한다. 신명기는 아주 빈번하게 야웨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와 장수(長壽)를 연결하는데(신 4:40; 5:33; 11:9), 이를 통해 우리는 므낫세 ‘장수’를 근거로 역대기 역사가가 므낫세를 재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2) 요시야(대하 34; 35)

(1) 역사가의 상이한 기록

요시야는 신명기 역사서에서 열왕기하 22-23:30까지 나오고, 역대기 역사서에서 역대하 34-35장까지 기록되었다. 신명기 역사서에 기록된 요시야는 독보적 인물이다. 요시야에 앞서서 신명기 역사가는 히스기야가 야웨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서술한다(왕하 18:5). 이로써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야웨 숭배자로 자리 잡았고, 신명기 역사서는 히스기야의 야웨 숭배를 요시야보다 높이 평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신명기 역사서는 요시야를 다시 한번 ‘전무후무’한 왕으로 묘사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히스기야와 구별한다. 아네트(M. Arneth)은 요시야에 대해 평가하는 구절을 적절하게 분석했고, 히스기야와 달리 요시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토라가 자리 잡고 있음을 피력한다.¹⁹

요시야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 이후에 신명기 역사서는 갑작스럽게 므낫세에 대해 언급하며 “야웨가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고 명시한다(26절). 이것은 유다의

19 M. Arneth, “Hiskia und Josia”, E. Otto, R. Achenbach, and M. Arneth(eds.), *Tora in der Hebräischen Bibel. Studien zur Redaktionsgeschichte und synchronen Logik diachroner Transformationen*, BZAR 7 (Wiesbaden: Harrassowitz, 2007), 275-293. 특별히 290.

멸망을 ‘므낫세의 죄’로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므깃도 전투에서 전사’한 요시아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다(왕하 23:29). 요시아의 죽음 조차 그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처럼 신명기 역사서는 요시아에 대해 부정적 서술을 하지 않는다.

요시아에 대한 역대기 역사가의 서술은 열왕기서와 구별된다. 역대기서는 요시아의 언급과 함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평가하고(대하 34:2), 곧이어 요시아의 개혁을 서술한다(대하 34:3-7). 신명기 역사서와 비교하여 역대기의 기록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요시아는 종교 개혁 이후에 율법책 발견했다는 사실이다(대하 34:8-28).²⁰ 요시아의 개혁이 율법책 발견보다 선행되어 기술된 관계로 열왕기하 23장과 평행한 역대기 본문은 짧게 나올 뿐이다(대하 34:29-33). 따라서 요시아 개혁에서 모세 토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둘째, 다윗의 명령에 대한 강조이다. 신명기 역사가는 요시아가 모세 토라를 철저히 준수한 자로 묘사한다. 그와 달리 역대기는 요시아가 ‘모세의 책’(סֵפֶר מֹשֶׁה 세페르 모셰, 대하 35:12) 이외에도 ‘다윗의 글’(כְּתָב הַדָּוִד 케타브 다비드, 35:4), ‘솔로몬의 글’(מִכְתָּב שְׁלֹמֹה 미크타브 쉘로모, 35:4), 그밖에도 ‘왕의 명령’(מִצְוֹת הַמֶּלֶךְ 비쯔파트 하멜렉, 35:10), 규례(מִשְׁפָּט 미쉬파트, 35:13)를 준행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무엇보다 역대기 역사가는 성소와 관련된 일체의 규정들을 다윗의 권위로 귀속시키기 때문에(대상 22-29장), ‘왕의 명령’ 그리고 ‘규례’ 등은 다윗의 명령으로 소급시킬 수 있을 것이다.²¹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역대기에서 몇 차례의 개혁이 진행되었고(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아 등), 레위인의 위치

20 참조하라. 배희숙, 『온 이스라엘 역사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8), 61.

21 참조하라. S. Japhet, *윳글* (2003), 485.

가 점차로 격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²² 특히 배희숙은 자신의 소 논문을 통해 역대기의 종교 개혁이 “다윗이 규정한 대로”²³ 진행되었음을 적절하게 보여줌으로써, 역대기가 ‘왕의 명령’을 토대로 종교 개혁이 실행되었음을 피력했다. 따라서 역대기 역사가는 요시야 유월절 이야기에서 다윗의 명령을 강조하며, 그것을 모세 토라에 준하는 것으로 위치시킨다고 보인다.

셋째, 유월절에 대한 역대기 역사가의 서술 변화이다. 역대하 35장은 요시야의 유월절 준수에 대한 기록이다. 이것은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비교적 짧게 기록되었지만(21-23절), 역대기 역사서에는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대하 35:1-19). 우리는 역사가의 역사 인식에 주목해야 한다. 저자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라고 서술하여 마치 사무엘 시대부터 요시야 시대까지 유월절이 지켜지지 못했음을 서술한다(18a절). 이어서 저자는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פסח) 지키지는 못하였다”고 언급함으로써, 한편으로 요시야 이전에 유월절 준수가 있었던 가능성을 열어 두며,²⁴ 다른 한편으로 요시야 유월절을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언급은 히스기야 시대에 유월절이 준수되었다는 역대기 기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대하 30장).²⁵

넷째, 요시야 죽음에 대한 보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신명기 역사가

22 참조하라. 배희숙, “레위인을 위한 역대기 개혁 프로그램”, 『구약논단』 21집 (2006), 69-85, 70-81.

23 배희숙, 윗글 (2006), 81.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대기 저자가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제외한 ‘유월절 행사’를 누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역대기 저자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유월절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언제 거행되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역대기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느냐’를 관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25 참조하라. 민경구, 윗글 (2021), 109-139.

는 요시아의 죽음을 짧게 언급할 뿐이다(왕하 23:28-30). 이와 달리 역대기 역사가는 상당히 길게 서술하며(대하 35:20-27), 요시아와 느고 사이에 오고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21절). 덧붙여 저자는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평가함으로써 요시아의 죽음을 설명한다(22절). 21-22절은 많은 신학적 질문을 야기한다.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갑작스럽게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죽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신명기 역사는 그것을 '므낫세에 대한 진노'로 풀이하는 듯 보이지만(왕하 23:26-27), 역대기 역사서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라는 표현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대하 35:22).

(2) 역대기에 나타난 요시아

역대기 역사가에 서술된 요시아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다. 우리는 역대기에 나타난 요시아 본문에서 몇가지를 요약 정리할 수 있다. 그의 종교개혁은 토라와는 무관하게 진행됐고, 다윗이 규정한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역대기 역사가의 서술 시점과 연결된다. 우상 숭배 문제는 요시아의 개혁으로 상당부분 해결되는 듯 보였지만, 요시아의 전사(戰死)로 인해 그의 개혁은 좌초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렘 44:17-18). 게다가 주전 608-586년 사이에는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 예루살렘이 우상을 숭배한 흔적이 여전히 관찰된다(렘 23:13; 25:6; 겔 7:20; 16:17).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포로기 이후 예언서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지적이 제한적으로 나올 뿐이다(슥 13:2). 오히려 포로 귀환 이후 초창기 예언자는 스룹바벨 성전과 함께 제의 회복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학개, 스가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야웨에게 바치는 행위를 비판한다(말 1:7-8). 이러한 모습에 상응하게 포로기 이후 시대를 반영하는 역대기 역사는 모세 율법에 따라 우

상을 철폐하는 것에 대한 관심 보다는, 다윗의 규정에 따라 성전 봉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역대하 35장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요시야 죽음에 대한 보도 가운데 느고와 요시야의 대화와(대하 35:20-21),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성서의 평가이다(대하 35:22). 특히 21절에서 느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서두르라고 명령했다’(אֱלֹהִים אָמַר לְבַהֲלֵנִי) 엘로힘 아마르 레바할레니)고 말하며, 이후에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אֱלֹהִים אֲשֶׁר-עִמּוֹ) 엘로힘 아셰르-임미)을 언급한다. 이후에 저자는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לֹא שָׁמַע אֶל-דְּבָרָיו נְכוּ מִפִּי אֱלֹהִים) 로 샤마 엘-디브레 네코 미피 엘로힘)라며 요시야의 행위를 평가한다.²⁶ 우리는 느고의 발언에서 관찰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석은 느고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는데, 배희숙은 관련된 논의를 적절하게 정리했다.²⁷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모두 본문을 서술되는 시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술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저자는 모호한 일반명사인 ‘엘로힘’ 개념을 사용하여 해석의 다양성을 제시하며 논쟁을 피한다. 역대기 역사가는 이에 대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서술하며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한다. 이것은 요시야의 죽음

26 J. M. Myers는 오래된 애굽-앗수르, 유다-바벨론 동맹간의 전쟁으로 해결하려 한다. J. M. Myers, *윗글*, 270; 하지만, 요시야의 행위는 ‘반 앗수르’, ‘친 바벨론’ 또는 자국을 침입하는 ‘애굽에 저항’이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R. B. Dillard, *윗글*, 458.

27 참조하라. 배희숙, 『역대하』, 대한기독교서회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446. 첫째, 느고가 언급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야웨로 평가하는 경우이다 (J. M. Myers, *윗글*, 271 등). 이 경우에 22절과 충돌되는 문제는 해결되지만, 야웨가 요시야가 아닌 애굽의 느고에게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느고는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한 ‘예언자’인가? 둘째, 주종관계를 제시하며 엘로힘을 앗수르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미 니스웨가 멸망한 상황에서 여전히 앗수르를 ‘엘로힘’이라 지칭하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엘로힘’을 애굽의 신으로 이해한다. 이와 유사한 견해로는 S. Japhet, *윗글* (2003), 493.

에 애통해 하는 신명기 역사서와 명확히 구별된다.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 역대기가 이처럼 상이하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명기 역사서는 요시아의 개혁 이후에 ‘야웨가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고 서술하고, 더 나아가 그 근거를 ‘므낫세’의 행위에서 찾는다(왕하 23:26). 뒤이어 신명기 역사가는 ‘성전을 버리리라’는 야웨의 말을 기록한 후에(27절), 요시아의 죽음을 보도한다. 환언하면 신명기 역사가는 ‘요시아’ 개인의 죄를 서술하지 않으며, 므낫세의 행위로 인해 징벌을 받았음을 간접적으로 피력한다. 이러한 모습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이어지는 소위 ‘연대 책임’을 기반으로 한다(신 3:26; 겔 4:4).

역대기에 기록된 요시아는 신명기 역사서의 기록과 명확히 구별된다. 느고와 대화를 별개로 역대기 역사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라고 서술한다. 즉, 저자는 신명기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인 **נִיבֹּן**를 활용하여 요시아를 부정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요시아의 죽음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라고 말한 ‘홀다’의 예언을 어긋나게 만들기도 한다(대하 34:28). 하지만 홀다의 예언이 틀린 것인가? 요시아는 더 이상 므낫세의 죄가 아니라, 요시아 자신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처럼 나온다. 환언하면, 역대기 역사가는 요시아라는 인물을 통해 ‘개인 책임’을 강조한다. 역대기 저자는 ‘홀다의 예언이 있었다’하더라도 개인의 책임에 따라 예언조차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시아는 성공적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전사한다. 역대기 사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 슬픔을 표현했다고 보도한다(대하 35:24-25).

역대기 역사가는 요시아의 변장에 대해 묘사한다. 신명기 역사서를 비롯하여 역대기 역사서는 ‘아합’이 ‘변장’(בִּנְיָהוּ)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 싸웠음을 보도하고(왕상 22:30; 대하 18:29), 그는 변장을 했으나 ‘무

심코 당긴' 활에 맞아 전사한 왕으로 나온다(대하 18:33). 역대기 역사가는 아합의 변장과 요시아의 변장을 동일하게 표현함으로써 요시아의 죄를 암시한다.²⁸ 이러한 역대기 저자의 암시는 아마도 '결과론적 해석'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처럼 보인다. 의로운 요시아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신학적 질문을 야기했는데, '전사'한 요시아라는 인물에 대해 역대기 저자는 그의 죄를 반복하여 암시하기 때문이다.

3) 므낫세와 요시아 평가를 통해 보는 역대기

므낫세와 요시아에 대한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의 상이한 평가는 적지 않은 문제를 불러왔다.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평가되던 므낫세는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 다윗 왕가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던 요시아는 단 한번의 부정적 언급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 두 본문에서 왕의 평가가 전환되는 시점은 명확하다.

두 역사서의 기록을 비교하며 우리는 가장 먼저 인물을 평가하는 '원리'가 상이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므낫세는 포로로 끌려갔지만(대하 33:11), 그곳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고, 므낫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므낫세를 예로 제시하며 저자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야웨가 들어주었음을 묘사한다. 이에 상반되는 인물이 바로 요시아이다. 요시아는 가장 인정받고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듣지 않음'으로 죽임을 당한다.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의 기록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역대기 역사가가 '공동체 책임'에서 '개인 책임'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체 책임'은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우리는

28 참조하라. R. P. Klein, *2 Chronicle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527.

‘즉각적 보응의 신학’²⁹ 또는 ‘개인 책임’의 원리가 역대기 역사서에서 관찰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³⁰

덧붙여 우리는 ‘개인 책임’의 원리를 역대기 이외의 본문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렘 31:29-30; 겔 18:19-20).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와 같은 본문은 공동체 책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개인 책임이 공동체 책임을 수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헨바흐(R. Achenbach)는 오경에 나타난 ‘공동체 책임’과 ‘개인 책임’의 관계에 대해 연구했으며, 모세의 죽음을 ‘공동체 책임’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מָוֶה רֵאשִׁית לְכָל בְּנֵי יִשְׂרָאֵל, 레마안켄, 신 1:37; 3:26), 개인 책임으로 변화가 오경의 최종 형태와 무관하지 않음을 피력했다.³¹ 이러한 개인 책임 사상은 오경, 예언서 그리고 역대기에서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덧붙여 우리는 역대기 사가가 ‘결과론적 해석’을 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이 역사가는 므낫세가 ‘가장 오랜 기간’ 통치 했음을 근거로 그의 선을 찾으며, 이와 달리 요시아가 ‘이방인의 손에 전사’했음을 근거로 그의 죄를 찾고 있다.³² 역대기 역사가가 결과론적 해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기록이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서술’(descriptio ex eventu)이기 때문이다. 역대기 사가가 이처럼 인물의 평가에 변화를 주는 이유는 포로기 이후 공동체를 교육하고, 그들에게 제기

29 참조하라. R. B. Dillard, *윗글*, 240.

30 참조하라. H. -S. Bae, *윗글*, 62. 그녀는 요시아뿐만 아니라, 아하스 등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원리가 관찰된다고 언급한다.

31 참조하라. R. Achenbach, *Die Vollendung der Tora. Studien zur Redaktionsgeschichte des Numeribuches im Kontext von Hexateuch und Pentateuch*, BZAR 3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03), 319.

32 이와 관련하여 S. Japhet은 “벌을 받는 것은 죄인이고 보상을 받는 것은 의인”이라는 표현한다. 참조하라. S. Japhet, *윗글* (2009), 129.

된 의문에 답을 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역대기 역사가는 성서의 정경화 과정을 암시한다. 성서의 정경화는 한 순간에 발생하지 않았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요시아 개혁을 서술하는 두 역사서에서 우리는 ‘모세 토라’가 다르게 인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열왕기서에 기록된 요시아는 토라를 발견하고 그것을 토대로 개혁을 단행한다면, 이와 달리 역대기에 나오는 요시아는 토라를 발견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문제없이 진행한다. 역대기 역사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다윗의 규례’이다. 요시아는 ‘모세의 책’(대하 35:12) 이외에도 ‘다윗의 글’(대하 35:4), ‘솔로몬의 글’(대하 35:4), ‘왕의 명령’(대하 35:10), 규례(대하 35:13)를 준행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역대기가 모세 토라를 상대화 시키는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게다가 신명기 역사서는 모세 토라를 기준으로 요시아를 평가하지만, 역대기에서 그것은 평가 기준이 아니다.

역대기 역사서가 이처럼 서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술한 것처럼 필자의 소논고는 서술하는 시기를 상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 다만 일치되는 의견은 역대기 역사서가 요시아라는 인물을 제시하며 “서술되는 시대”³³를 보여주지만, “서술하는 시대”³⁴는 그로부터 적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저자가 모세 토라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다른 규정을 함께 서술하는 이유는 아마도 모세 토라는 이미 완성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을까? 역대기 역사서가 ‘개인 책임’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견해는 역대기 역사서가 시기적으로 오경 완성 이전으로 소급되기는 어렵다는

33 E. Otto, 윗글, 120.

34 E. Otto, 윗글, 120.

것을 가리킨다. ‘토라’가 모세 토라로 불리며 권위가 부여된 것은 자명하다(비고, 왕하 22:8). 덧붙여 우리는 역대기 역사가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여러 기록물을 활용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역사가가 이러한 여러 자료를 활용한다는 사실은 당시에 ‘권위있는 기록’이 추가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듯 하다. 역대기에는 성전 음악가를 예언자로 지칭하며 새로운 예언자의 모습을 묘사할 뿐 아니라(대상 25:1),³⁵ 열왕기서에 언급되지 않는 예언자가 나오기도 한다(대하 36:12). 특히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 동일한 시기에 활동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다고 서술함으로써, 예레미야의 위치를 격상시키고 있다. 열왕기서에 나오지 않는 예언자를 서술한다는 사실은 역대기 역사가의 시대에 그의 선포가 하나님 말씀처럼 수용되는 시대임을 암시한다. 환언하면, 예언자의 선포가 거부되는 시대를 지나 권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은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었지만 거부되는 시대, 이스라엘 포로 사건을 통해 그들의 선포가 진정한 말씀으로 인정되며 기록되는 시대 그리고 이후에 정경화로 확정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시대의 단절을 통해 발생하지 않았고 ‘오래 기간’³⁶이 소요되었으며, 역대기 역사서에는 그러한 과정이 투영되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는 역대기 역사가가 오경을 제외한 다른 것을 정경으로 수용하지 않은 사마리아 집단과 구별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역대기 역사가는 신학적 다양성을 추구한다. 노트(M. Noth)는 오래 전에 역대기 역사가가 신명기 역사서를 주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서술했다.³⁷ 이것은 한편으로 역대기 역사가가 활동하던 시기

35 참조하라. 배희숙, “역대기의 예언 및 예언자 이해”, 『구약논단』 74집 (2013), 7-36. 19.

36 참조하라. R. Kessler, 윗글, 21. 이는 Fernand Braudel의 “Longue Durée”(장기 지속)과 일치한다.

37 참조하라. M. Noth, 윗글, 133-134.

에 권위있는 사료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역대기 역사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신학을 가감없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첨가함으로써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다! 따라서 역대기 역사가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를 위해 과거 역사를 수정하기도 한다. 이것은 역대기 역사가가 사료, 또는 과거의 신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신학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 역사가의 신학적 다양성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가장 먼저, 우리는 역대기 역사가에게 주어진 다양한 사료를 언급할 수 있다. 신명기 역사서에 나오는 요시아 개혁은 모세 토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오경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시대를 반영한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자신들이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을 사료로 활용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대상 29:29). 그러한 기록은 ‘정경’으로 수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역대기 역사가는 그것을 활용하여 성서 해석을 다양하게 이끌어내고 있다. 둘째로, 역대기 역사가는 변화하는 시대를 감지한다. 역대기 역사가가 ‘포로기 이전 역사’를 활용하는 것은 당면한 ‘시대’를 위한 것이지, 과거 시대 자체를 재조명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역대기를 해석하기 위해 서술하는 시점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현대 독자는 역대기를 읽으며 발생하는 “시간 왜곡”³⁸을 극복하기 위해, 철저하게 ‘서술하는 시대’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를 견지해야 한다.

38 R. D. Nelson, *위글*, 195.

3. 나가는 글

필자는 본 소논고를 통해 역대기 역사서에 언급된 므낫세와 요시아의 기록을 살피고, 이를 통해 역대기 저자의 모습을 한켠에서 관찰했다. 두 인물에 대한 평가가 역대기 역사서와 신명기 역사서에서 상반되게 나온다는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사한 기조를 유지하지만, 므낫세와 요시아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다르게 바뀌고 있다. 므낫세와 요시아에 대한 상반된 평가 기준은 역사가의 관점을 알려준다. 오랫동안 이것은 ‘개인 책임’으로 설명되었지만, 필자는 이에 ‘결정론적 관점’이 투영되었음을 피력했다. 이것은 ‘서술되는 시점’과 ‘서술하는 시점’에서 역대기를 바라볼 때,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준다.

므낫세에 대한 평가가 바뀌는 전환점은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이다. 므낫세 시대에 남유다는 앗수르에 의해 정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은 앗수르바니팔의 즉위식과 연결된 사건이므로, 포로로 끌려갔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역대기 역사가는 이것을 포로 사건과 결부시켰고, 즉위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므낫세를 포로 귀환과 연결시킴으로써 역사를 재구성한다.³⁹ 역대기 역사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므낫세라 하더라도 그가 기도하면, 야웨가 들어주신다고 제시한다. 가장 악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야웨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는가! 이로 인해 므낫세는 포로 귀환 공동체의 모범적 인물로 자리잡았다. 이로써 역대기 저자는 포로로 끌려간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 놓

39 역대기 역사가 역사를 재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조하라. M. A. Throntveit, “The Chronicler’s Speeches and Historical Reconstruction”, M. P. Graham et al., *The Chronicler as Historian*, JSOTS 23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255-245.

는다. 우리는 여기에서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역대기 역사가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역대기 역사는 이미 발생한 역사로부터 재구성 한다 (descriptio ex eventu)는 점에서 ‘결과론적 관점’을 가지고 므낫세를 해석한다. 왜냐하면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인 동시에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한 왕이기 때문이다. 신명기에서는 종종 ‘율법 순종’과 ‘장수’를 연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역대기 역사는 결과론적 관점에서 므낫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역대기 역사가가 므낫세와 상반되는 경우로 제시하는 인물은 요시야이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야웨의 마음에 가장 합한 인물이었으며, 토라에 철저히 순종하는 인물로서 전무후무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다(왕하 23:25). 그러나 이처럼 철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많은 사람에게 의문을 던졌다. 역대기 역사는 요시야에 대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변장하고’라는 표현을 추가로 언급하며, 요시야에 대해 새롭게 평가하며 기술한다. 역대기 역사가가 요시야를 평가하는 근거는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개인 책임’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자신의 시대에 속한 독자에게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는 자라 하더라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렘 31:29-30). 하지만, 저자는 부지중에 ‘신실한 요시야는 왜 전사해야 했는가?’에 대해 질문하며, ‘갑작스럽 죽음’이라는 결과에서 출발하여 요시야를 새롭게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둘째, 필자는 역대기 역사서의 요시야 평가에서 ‘정경화 과정’이 관찰되고 있음을 피력했다. 역대기 사가는 모세 토라를 중심으로 개혁을 진행했다는 열왕기서와 달리 ‘다윗의 명령, 규례’를 강조한다. 역대기 역사서에서 모세 토라는 개혁의 기준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의 명령, 규례’가 모세 토라를 대체한다고 이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전제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양한 자료를 언급하

는 역대기 역사서에서 우리는 정경화 과정을 살필 수 있다. 정경화는 한 '순간'에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랜 기간'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신명기 역사서에서 예레미야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역대기 역사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인정받았음을 전제한다.

역대기 사가가 신명기 역사서의 기록을 의존하지만, 그것에 메이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역대기 사가는 과거의 신학을 답습하지 않는다. 역대기 역사가의 저술 목적은 과거 시대 자체를 재조명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적 사료를 활용하여 당면한 '시대'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역대기 사가가 위치한 '서술하는 시대'에 대해 탐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논의는 차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윤이, “역대기 역사서의 편집층 연구”, 『구약논단』 22집 (2006), 80-97.
- _____, 『역대기 역사서의 초기 편집층 연구』,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민경구, “히스기야와 출애굽. 역대하 30장에 나타난 유월절의 신학적 함의”, 『C&C』 15권 2호 (2021), 109-139.
- _____, 『다시 읽는 창세기』 (고양: 이레서원, 2019).
- 배희숙, “레위인을 위한 역대기 개혁 프로그램”, 『구약논단』 21집 (2006), 69-85.
- _____, “역대기의 예언 및 예언자 이해”, 『구약논단』 74집 (2013), 7-36.
- _____, 『역대하』, 대한기독교서회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_____, 『온 이스라엘 역사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8).
- “에살핫돈의 중주조약”, 『고대 근동 문학 선집』 (강승일/김구원/김성천/김재환/윤성덕/주원준 옮김), (서울: CLC, 2016), 455-471.
- “에살핫돈(680-669): 시리아, 팔레스타인 원정”, 『고대 근동 문학 선집』 (강승일/김구원/김성천/김재환/윤성덕/주원준 옮김), (서울: CLC, 2016).

- “Aus dem Prisma Ninive A Asarhaddons”, *TUAT*, Bd. I.
- Achenbach, R., *Die Vollendung der Tora. Studien zur Redaktionsgeschichte des Numeribuches im Kontext von Hexateuch und Pentateuch*, BZAR 3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03).
- Arneth, M., “Hiskia und Josia”, E. Otto, R. Achenbach, and M. Arneth (eds.), *Tora in der Hebräischen Bibel. Studien zur Redaktionsgeschichte und synchronen Logik diachroner Transformationen*, BZAR 7 (Wiesbaden: Harrassowitz, 2007), 275-293.
- Bae, H. -S., *Vereinte Suche nach JHWH. Die Hiskianische und Josianische Reform in der Chronik*, BZAW 355 (Berlin: de Gruyter, 2005).
- Birch, B. C., Brueggemann, W., Fretheim, T. E., and Petersen, D. L., 『신학의 렌즈로 본 구약개관』 (차준희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 Dillard, R. B., 『역대하』, WBC (정일오 옮김), (서울: 솔로몬, 2005).
- Japhet, S., *2 Chronik*, HThKAT (Freiburg i. Breisgau: Herder, 2003).
- Japhet, S., *The Ideology of the Book of Chronicles and Its Place in Biblical Thought* (Winona Lake: Eisenbrauns, 2009).
- Kessler, R., 『고대 이스라엘 사회사』 (민경구 옮김), (서울: CLC, 2022).
- Klein, R. P., *2 Chronicle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 Matthiae, K., und Thiel, W., *Biblische Zeittafeln, Geschichtliche Abrisse, chronologische Übersichten, Überblickstafeln und Landkarten zur alt- und neutestamentlichen Zei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5).
- Myers, J. M., 『역대기하』,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 Nelson, R. D., 『역사서』 (이윤경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 Noth, M.,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Die sammelnden und bearbeitenden Geschichtswerke im Alten Testament* (Darmstadt: Max Niemeyer, ³1963).
- Otto, E., *Das Deuteronomium im Pentateuch und Hexateuch. Studien zur Literaturgeschichte von Pentateuch und Hexateuch im Lichte des Deuteronomiumrahmens*, FAT 30 (Tübingen, Mohr Siebeck, 2000).
- Schoors, A., *Die Königreiche Israel und Juda im 8. und 7. Jahrhundert v. Chr.: Die assyrische Krise*, Biblische Enzyklopädie 5 (Stuttgart: W. Kohlhammer, 1998).
- Throntveit, M. A., “The Chronicler’s Speeches and Historical Reconstruction”, M. P. Graham et al., *The Chronicler as Historian*, JSOTS 23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255-245.

Williamson, H. G. M., *Israel in the Books of Chronicl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검색어

역대기, 역사서, 므낫세, 요시아, 개인책임, 결과론적 관점, 서술하는 시대, 정경화

Die Chronik aus der Sicht von Manasse und Josia

Kyung-Goo Min
Ezra Bible Institute

Die Analyse der Berichte über die Könige Manasse und Josia in 2. Chr. kann Erkenntnisse über den Autor der Chronik und seine Intention ermöglichen. Es ist Forschungskonsens, dass die Urteile über diese zwei Könige im chronistischen und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 in Widerspruch zueinander stehen. Diese konträre Beurteilung eröffnet uns jedoch einen Zugang, um die jeweilige Perspektive und das Interesse der Autoren zu erschließen. Die Chronisten interpretieren Manasse aus einer „konsequenzialistischen Perspektive“, indem sie die Geschichte rekonstruieren, die bereits stattgefunden hat (*descriptio ex eventu*). Manasse ist der böseste König, aber zugleich derjenige, der am längsten regiert hat. Im Deuteronomium wird der „Gehorsam gegenüber dem Gesetz“ häufig mit „Langlebigkeit“ in Verbindung gebracht, was ihn aus konsequenzialistischer Perspektive zu einer positiv zu verstehenden Figur machen würde. Manasse wird aber nicht deswegen zu einer vorbildhaften Figur, da auch die Chronik all seine Vergehen darstellt. Zum Vorbild wird er jedoch durch seine durch das assyrische Exil angestoßene Umkehr zu JHWH, die ihn in der chronistischen Darstellung zu einem konsequenten Vertreter der Kultreinheit werden lässt. Dies wiederum macht ihn gewissermaßen zum Prototypen für die zurückkehrende Gemeinschaft der in Babylon Exilierten.

Josia stellen die Geschichtsschreiber der Chronik hingegen als Gegenbild zu Manasse dar. Nach 2. Kön 23,25 war er ein Mann nach dem Herzen Jahwes und wurde für seinen strikten Gehorsam gegenüber der Tora gelobt. Doch obwohl er der vorbildlichste aller Könige war, warf sein plötzlicher Tod viele Fragen auf. Konfrontiert mit der Frage: „Warum ist der treue Josia getötet werden?“, nimmt der Chronikautor eine Neubewertung Josias vor, deren Ausgangspunkt folgerichtig ist, da er von seinem vorzeitigen Tod weiß. Der Historiker fällt ein negatives Urteil, indem er im Gegensatz zur deuteronomistischen Tradition von ihm berichtet, dass er „nicht auf das Wort, das aus dem Mund Gottes kam, gehört habe“.

Außerdem können wir in der Beurteilung Josias durch die Chronisten einen „Prozess der Kanonisierung“ beobachten. Im Gegensatz zum Buch der Könige, das die mosaische Tora in den Mittelpunkt seiner Reformen gestellt hat, betonen die Chronisten die „Gebote und Vorschriften Davids“. Die Kanonisierung geschah nicht in einem „Augenblick“, sondern über einen „langen Zeitraum“ hinweg. Der Prophet Jeremia wird zum Beispiel in der deuteronomistischen Überlieferung gar nicht erwähnt, aber in den Chronikbüchern wird vorausgesetzt, dass Jeremia als Prophet Gottes anerkannt war.

Es ist eine historische Tatsache, dass sich die Chronisten auf den Bericht der deuteronomistischen Überlieferung gestützt haben, aber sie folgen ihm dennoch nicht in ihren Urteilen über die Vergangenheit, da sie sich nicht an deren Theologie orientieren. Das Ziel der Chronisten ist es nicht, eine vergangene Epoche als solche zu beschreiben, denn vielmehr ist es ihr Ziel, anhand historischer Quellen Antworten auf die Fragen der eigenen Gegenwart zu finden. Daher müssen wir die „Erzählzeit“, in der die Chronisten zu verorten sind, erforschen, um ihre Intention angemessen zu erfassen.

key words

Chronik, Geschichtswerke, Manasse, Josia, Persönliche Verantwortung,
konsequenzialistische Perspektive, Erzählzeit, Kanonisierung

투고일: 2023년 06월 19일

심사일: 2023년 08월 09일

게재 확정일: 2023년 08월 29일

www.kci.go.kr